

태광그룹, K-뷰티 새판 짚는다... 신설법인·애경산업 투트랙

K-뷰티,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
신설 법인, '사핀' 첫 공개
해양 바이오, 항노화 제품화
애경산업, 북미·유럽 확대
AGE20'S·루나, 美시장 입점
독자 브랜드·유통망 시너지



애경산업은 자사 핵심 브랜드들을 미국 내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켰다. /애경산업

태광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K뷰티를 낙점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독자적인 브랜딩을 위해 신설한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SIL)'과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애경산업'이라는 양 날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태광그룹은 신설법인 실(SIL)을 공개해 새로운 화장품 사업의 출발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애경산업을 통해서도 중국 재편과 함께 미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태광그룹은 신설 코스메틱 계열사 실에서 첫 스킨케어 브랜드 '사핀'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사핀은 한국 바다에서 얻은 원료와 해양 바이오 기술을 집약한 뷰티 브랜드다. 기존 화장품의 피부 트러

블 개선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피부 스스로의 회복력과 재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한국 바다에서 추출한 켈프, 해양 심층수, 씨실트 원료에 해양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독점 성분 '리버스마린'을 활용한 항노화 제품군을 대거 출시한다. 오는 12일부터 서울 성수동 S팩토리에서 대규모 브랜드 행사를 전개하는 등 국내 M

Z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최근 태광그룹으로 편입한 애경산업은 글로벌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넓힌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사업부는 글로벌 다변화 공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액 5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459억원 대비 13% 성장한 규모로 해외 성장 가능

성을 입증한 성과다.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글로벌 마케팅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은 일시적 적자 전환을 겪었으나, 이는 북미와 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선투자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문을 연 CJ올리브영에도 입점했다. 이번 입점으로 애경산업은 K뷰티의 격전지인 북미 오프라인 시장에서 핵심 브랜드 에이지 투웨니스(AGE20'S)와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루나 등을 내놓는다. 에이지 투웨니스의 경우 브랜드 주력 제품인 에센스 팩트를 현지 소비자 피부 톤에 맞춰 20개 색으로 개발했다. 또 미국 전용 미니 사이즈,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받은 선스크린 등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마련한다. 루나도 베스트셀러 제품인 컨실러를 20개 색상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피부색과 인종을 갖춘 북미 소비자를 정조준한다.

태광그룹 측은 "애경산업의 중장기 화장품 전략과 신설법인 실의 혁신성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룹 차원의 글로벌 뷰티 영토 확장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29일 공식 개점한 올리브영 미국 패서지나점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K뷰티 쇼핑을 하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미국 첫 매장 '흥행'

K-뷰티 체험에 현지 고객 몰려

CJ올리브영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에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날 중 L.A 대표 상업 중심지이자 대형 쇼핑 상권인 웨스트필드 샌주리시티 쇼핑몰에 '올리브영 샌주리시티점'을 연이어 개점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은 30일과 31일에도 방문객이 몰리며 종일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매장 내 안전과 쇼핑 편의를 위해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약 200명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입장 대기와 계산 대기 줄이 영업 마감 시간까지 이어질 정도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직원들이 외치는 올리브영의 시그니처 현대 멘트가 이어지면서 매장 내부에는 생동감과 유쾌한 분위기가 넘쳤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희귀질환 신약으로 글로벌 무대 넓힌다

릴리와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수출
단장중후군 치료제 글로벌 임상 탄력
랩스커버리 기반 신약 경쟁력 재확인



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뉴시스

한미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에 희귀질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을 조 단위 규모로 기술수출하며 글로벌 희귀약품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한미약품은 일라이 릴리와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 개발, 제조 및 상업화를 위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릴리로부터 확정 계약금 7500만 달러(약 1129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향후 임상 개발과 규제 승인, 상업화 마일스톤 달성 시 최대 11억8500만 달러(약 1조7844억원)를 추가로 받는다. 제품 출시 이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 발생한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2(GLP-2)의 장 성장 촉진, 염증 완화, 장 점막 보호 및 재생 등 생물학적 효과를 갖는다.

현재 선전성 또는 후천적 이유로 소장

의 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희귀질환인 단장중후군을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해 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 시점까지 주도하며 릴리는 축적된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임상을 추진한다.

한미약품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선전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후보물질 '에페게글루카곤(HM 15136)'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받는 등 임상뿐 아니라 상업화 가능성이 높았다.

이 물질은 세계 최초 주 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 저혈당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우수한 안전성이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최종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둔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측은 "랩스커버리의 독보적 특성은 투약 주기를 늘려, 투여 횟수 및 증량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체감하는 임상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이 독자 구축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 경쟁력도 입증됐다. 랩스커버리는 약물 반감기를 늘려 장기지속형 기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네페글루타이드, 에페게글루카곤뿐 아니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호 국산 비만약으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역시 랩스커버리 기술을 활용한 대표 물질이다.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 기반의 장기지속형 약물 기전을 다양한 질환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8일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의약품 수출규제 자문지원 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출규제 자문위 출범

해외 진출 기업 현장 지원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 맞춤형 현장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해 수출규제지원 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위촉식 및 제 1차 자문회의는 국가별로 상이한 인허가 제도와 복잡한 규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실무 중심의 해결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 인허가(RA), 컨설팅, 법률 및 특허, 정책 등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업계 전문가 총 21인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침향 품질평가 객관화 시동

한국분석과학회서 연구결과 발표

광동제약은 '제76회 한국분석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침향의 품질 평가를 위한 정량적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침향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침향의 주요 성분인 유데스몰(eudesmol)을 지표로 삼아 표준화된 분석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침향은 침향나무가 외상이나 균 감염 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가 오랜 시간 목재에 축적되어 생성되

는 원료다.

일반적으로 수지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원산지나 생성 환경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고, 평가 방법 역시 향이나 외관 등 감각적 요소에 의존해 정량적 품질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동제약 연구팀은 유데스몰의 α·β·γ형 세 가지 이성질체에 주목해 이들 성분의 함량과 수지 특성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는 국내 유통 침향 시료 9종을 대상으로 함량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코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북미 공략

캐나다 보건부에 CT-P55 허가 신청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티스(COSENTYX) 바이오시밀러 'CT-P55'에 대해 캐나다 보건부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캐나다에서 보유했던 전체 적응증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 허가 신청은 건강한 피험자 1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임상에서 CT-P55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물동태학

적(PK)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안전성 및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캐나다 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글로벌 의약품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인 코센티스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약 66억8800만 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는 바이오시밀러 도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 대표적인 천(靑)바이오시밀러 국가로 평가된다.

/이세경 기자